

# 데이트 쇼 프로그램의 기호학적 분석

함 현

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e-mail: [poparts@chungwoon.ac.kr](mailto:poparts@chungwoon.ac.kr)

## A study on the matchmaker show program in the Air

Hyun Hham

Dept.of Broadcasting & Digital Media, Chungwoon.ac.kr

### 요 약

요약 본 논문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방송되고 있는 데이트 쇼 프로그램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현상이 담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데이트 쇼 프로그램은 케이블 채널 TVn의 “러브 스위치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젠더의 구분에 따른 특정한 사고방식과 행위방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남녀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텔레비전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발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서론

텔레비전은 인간이 창출한 최대의 인공물로 우리의 생활을 양식화하고 주도적인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명한 사실이다. 그 결과 텔레비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공적·사적영역에 대한 우리의 일상성의 문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텔레비전 문화의 지표 확장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어떻게 수용자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텔레비전 문화의 지표를 확장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의 현재성과 결부된 가속화 현상은 대중문화의 상징체계를 구현하고 기호화하는 현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쇼 프로그램의 지구적 확산과 끊임없는 소재를 제공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청춘남녀의 짝짓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문화가 형성하고 있는 미디어 문화의 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대상은 케이블 채널 TVn의 <러브 스위치>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이론적 논의

#### 2.1. 문화에 대한 논의

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이 상징을 사용하여 만드는 인지적 및 규범적 체계로서 인간행동을 규제하는 외부환경이다. 문화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만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대를 거쳐 전달되며 그 문화에 속한 구성원들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1].

이에 대한 유리 로트만(Yuri M. Lotman)은 문화는 결코 보편적인 다수가 아니라 언제나 일정한 방식으로 조직화된 부분이라 강조하고, 그것은 언제나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된 영역을 형성하는바, 결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즉 우리의 기저문화에 깔린 특정한 사고방식을 행위의 객관화된 코드의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화의 특징이다.

#### 2.2. 텔레비전 문화의 장

텔레비전 문화의 구조적 특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대중문화의 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은 인간의 무한한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주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험의 장’으로서 텔레비전 문화의 특성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사고와 기억의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코드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세

계의 지배적 특성은 개인에서 집단에 이르기까지 ‘코드’에 의한 접근 방식이 유행적 패턴의 흐름으로 전개되어, 상징적인 의미를 실현하고 새로운 교환의 기능으로 다양성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텔레비전 문화의 장은 ‘경험의 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통해 수용자와 조우하고 있다.

### 3. 러브 스위치의 통합체 분석

#### 3.1. 등장인물의 구조

<러브 스위치>의 등장인물은 2인의 프로그램 진행자(이경규, 신동엽)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성간의 첫 만남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다.

30인의 전문직 여성 패널은 남성 짝짓기를 통한 이성간의 만남을 위해 출현하고, 한명의 남성은 30인의 여성 패널에서 선택되어지고, 추후에 선택되어진 여성을 대상으로 파트너를 선택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게 된다.

#### 3.2. 계열체 분석: 등장인물의 분석

이 프로그램의 남성 출연자는 몸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30인의 여성 패널로부터 선택되어지는 몸에 대한 기준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도상적 이미지의 복합적인 상황들이 정상 또는 비정상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다양한 여성 패널의 기호와 성향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시선의 권력성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역으로 남성 출연자는 최종적인 여성 패널이 남아 있는 즉 자신을 선택한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 시선의 권력과 시선 작용하여 데이트를 신청하게 된다. 그럼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는 등장인물은 시선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젠더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3.3. 통합체 분석: 이야기 전개구성 및 연결 방식

<러브 스위치>의 서사구조는 선택의 최종적 만남을 주제로하는 결과에 비추어볼 때 남성 주인공에 대한 여성패널의 권력과 시선이 작용하는 지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단락별 통합체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이야기 전개구성 및 연결 방식

1차 관문	남성주인공의 도상성(외형적 모습)에 의한 여성 패널의 선택권
▼	
2차 관문	남성주인공의 VCR 소개자료에 의한 여성 패널의 선택권
▼	
3차 관문	남성주인공의 VCR 소개자료에 의한 여성 패널의 선택권
▼	
4차 관문	선택되어진 여성패널을 남자주인공이 선택하여 데이트 신청 또는 포기(거부)

### 4. 결론 및 제언

이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통해서 계열체분석과 통합체적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전통적인 데이트 쇼 프로그램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남녀의 시선 교환이 관심을 표출하기 위한 쌍방향적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권력과 시선으로 작용하는 젠더의 새로운 담론이 생성되고 있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작용하였던 권력과 시선의 문제가 여성성에서 남성성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여성 몸에 대한 담론이 기존의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상황에서 남성 몸에 대한 외향적 가치와 기준의 판단이 변화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남성 신체의 상징화된 담론의 형성은 텔레비전 문화의 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미디어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디어를 통해 신체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연구의 지향점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정수복(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p.48.  
 [2] Lotman, Yuri M(1994), 김수환 옮김(2008), 『기호계: 문화연구와 문화기호학』, 문학과지성사, p.63